

本보기 仁聖學院을 이룩하자!

설립자 이 기 혁 목사



우리 仁聖學院은 港都仁川에서 명예스럽게 자라고 있다.
앞으로 本보기 學院을 이룩할 것을 疑心치 않는다.

우리 學院이 처음 設立當時에는 미약하고 보잘 것 없어서
學生들도 잘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이다. 그러나 우리 學院의
設立趣旨와 教育理念이 그리스도의 福音主義에 基礎하여
하나님의 祝福을 믿고 不屈의 精神으로 꾸준히 힘써 나온
結果, 今日을 보게 된 것이다.

지금은 우리 學院의 명성이 漸漸 높아져서 學年初에 入學
志願者 定員比例率의 最高를 갖게 되며 優秀한 學生이 해마다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. 그리고 仁
川社會는 勿論이요, 全道內의 有數한 學院들과 같이 어깨를 가르려니 하고 나아가고 있다.

今年 四月에 美國聯合長老會 宣教會 教育總務인 「윌슨」博士가 여러 나라의 基督教學校들을 巡廻
하면서 그 教育方法과 精神的指導에 對한 虛實을 細密히 調査해왔다. 韓國에 와서도 一個月半을
留하면서 全國內 基督教學校를 歷訪한 後 마즈막에는 各學校 責任者들을 召集하고 評價會를 開催
하였다. 그 會議에서 結論的으로 信仰的이요 希望性있게 아름다운 學校는 仁聖學院이 第一이

라고 하는 指名을 받게 되었다.

우리學校는 敎會와 學校 사이에 精神的 또는 信仰的 유대도 긴밀하게 잘 되어있고 敎員陣의 團合、理事陣의 決意、卒業生들의 母校愛、學父兄들의 稱贊、社會의 信任과 勸導、學生들의 熱心과 篤學、善行美談이 地方에서 자자하고 監督官廳의 信望이 두터움을 査定한 바 最高의 好評을 하고 가면서 가는 곳마다 致賀를 했다. 今番 내가 美國 旅行中에도 「웰손」博士를 만났더니 이런 稱贊과 여러분의 健闘를 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.

여러분이 사랑하는 仁聖은 實로 本보기 學院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.

이렇게 되려면 우리 學生들이 信仰을 中心하여 活動하며 眞實、正直、勤勉協助、奉仕、自由、平和의 人格으로 養成되어야 할 것이다. 그리고 道義와 倫理가 땅에 떨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校職員들과 學生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우리 校에 위해 산 敎育의 張本人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. 나는 우리 學院에서 使用하는 人事의 말을 하루도 몇백번씩 듣는 것을 매우 유쾌하게 여긴다. 『고맙습니다』 『감사합니다』 하는 말은 萬福을 끌어들이는 重要한 方法이라고 생각한다. 聖經敎訓中에 『凡事에 감사하라』고 하셨다. 基督教 先進國家는 이 聖訓을 깨달았기 때문에 歐美諸國은 數百年 前부터 대양 『고맙습니다』 하는 말을 使用하면서 生活해 왔다. 甚至於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이들을 向하여서도 『고맙습니다』 하는 것이다.

사람들 입에서 저주가 나오게 되면 먼저 그 자신이 저주를 받게 되고 먼저 남을 축복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이 먼저 福을 받는 것이 現著한 事實이다. 사랑하는 여러 學生들이여! 우리 學원에서 六년간 敎養을 받는 동안 『고맙습니다』 『감사합니다』 하는 말을 뼈속에 새기도록 習慣을 이루워 一生을 기쁘게 使用하면 그 祝福이 後代까지 영원히 미칠 것이다. 우리 學生들은 一人도 틀림없이 우리 國家와 우리 校를 위해 本보기 人物이 되어 우리 學원의 명예를 世界에 알리고 各自 위에 亨通이 있기를 忠心으로 激勵하는 바이다.